

논문투고일 : 2016. 3. 30

심사완료일 : 2016. 4. 29

게재확정일 : 2016.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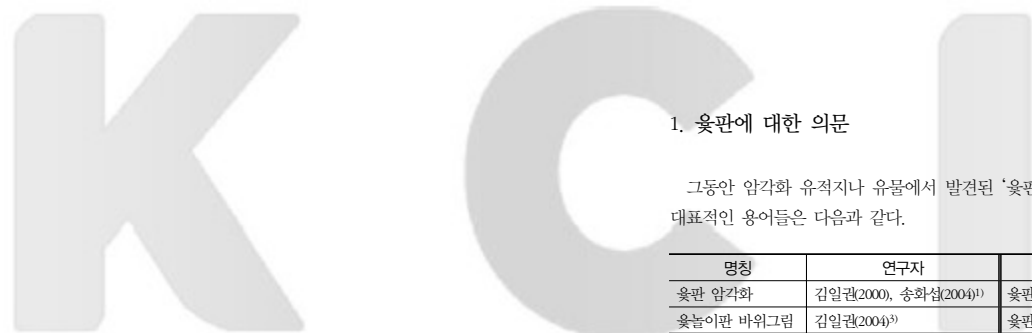
제주 항파두리(缸坡頭里) 항몽(抗蒙) 유적 내성지(內城地) 출토 ‘옷판형 암각화’의 상징성

장 장 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옷판에 대한 의문
2.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에 대한 해석 검토
3. 전통적인 건축의례의 상징성
4. 새로운 해석의 시도
5. 잠정적인 결론

제주 향파두리(缸坡頭里) 항몽(抗蒙) 유적 내성지(內城地) 출토 ‘옷판형 암각화’의 상징성

장 장 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옷판에 대한 의문

그동안 암각화 유적지나 유물에서 발견된 ‘옷판’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였다. 대표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명칭	연구자	명칭	연구자
옷판 암각화	김일권(2000), 송화섭(2004) ¹⁾	옷판형 암각화	권미현(1996) ²⁾
옷놀이판 바위그림	김일권(2004) ³⁾	옷판형 바위그림	송화섭(1995), 이하우(2004) ⁴⁾
		옷판형 암각	정동락(2008) ⁵⁾

〈표 1〉 옷판 용어

이 용어들은 모두 ‘옷놀이 도판인 옷판을 그린 바위그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형’의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며 형태론적인 차이는 미미할지라도 의미론적인 차별성은 매우 크다. 한 갈래는 ‘옷판 암각화, 옷놀이판 바위그림’ 계열의 용어인데, 이들은 ‘놀이로서의 기능성을 지닌 도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또 한 갈래는 ‘옷판형

1) 김일권, 2000, 「한국 뿔판형 암각화의 문화성과 상징성」, 『학예연구』 제8·4집 국민대학교박물관 63~110쪽 ; 송화섭, 2004, 「한국 뿔판암각화와 불교신앙」, 『한국 암각화연구』 제8집 한국암각학회회 1~20쪽.
 2) 권미현, 1996, 「뿔판형 암각화의 연구」, 『인동사학』 제2집 인동대학교사학회 47쪽.
 3) 김일권, 2004, 「한국 옷놀이판 바위그림에 투영된 천체우주론적 관점 고찰」, 『정음 두송산 명화대의 바위그림 자료 소개를 덧붙여』, 『한국 암각화연구』 제8집 한국암각학회회 57~103쪽.
 4)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뿔판형 바위그림에 대하여」, 『황토문화』 제8·10집 황토문화연구회 45~66쪽 ; 이하우, 2004, 「한국 뿔판형 바위그림 연구-병위각을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연구』 제8집 한국암각학회회 23~64쪽.
 5) 정동락, 2008, 「고령지역의 뿔판형 암각」, 『한국 암각화연구』 제11·12집 한국암각학회회 161~176쪽.

암각화, 울판형 암각'이라는 계열로, '놀이로서의 기능성을 지닌 도판과 같은 형태'라는 뜻을 강조한 이름이다. '같은'이라는 관용어는 본질은 다르되 형태가 유사함을 들어 쓴 말이니, 울판형 암각화는 놀이를 가리키는 울판과 거리가 있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⁶⁾

후자는 현행의 민속놀이 '웃'과 '웃놀이'의 놀이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또 다른 기능성을 염두에 둔 명칭이다. 무엇을 상징하는가(도형의 상징성)를 알 수 없지만 현행의 웃놀이를 하는 데 쓰이는 놀이판(울판, 말판)과 같은 형태를 띤 바위그림이라는 뜻이다. 이는 울판형 암각화가 본디부터 지닌 특정한 의미(놀이 이외의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놀이로서의 울판그림을 염두에 두되 그 이전의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울판형 암각화'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⁷⁾

울판형 암각화가 소재하는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소마다 다른 상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성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울판형 암각화가 소재하는 곳은 '바위'가 대종을 이루고 자연바위와 인공암반 및 인공물로 나뉜다. 자연바위는 산경이나 산록 및 마을 들머리의 자연암반을 가리키며, 인공물은 건축부재로 가공된 바위나 건물 등을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 주춧돌이나 전돌과 같은 건축부재에 등장하는 울판이다.

이하우(2014)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견되어 총합된 울판형 암각화는 총 60곳 252점이다.⁸⁾ 이 통계는 가장 최근에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고 있다.

울판형 암각화는 의미로 볼 때 놀이의 기능만을 특정할 수 없다. 암각화의 장소성과 존재 양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⁹⁾

- ① 한 장소 또는 한 바위의 화면(畫面)에 다수의 울판이 등장한다.
- ② 수평암반 뿐만 아니라 바위의 경사면에도 울판이 존재한다.¹⁰⁾
- ③ 이전의 울판 위에 새 울판이 덧새겨진다.¹¹⁾
- ④ 미완의 울판이 다수 존재한다.¹²⁾

6) 원판형(圓)을 유사성이 있는 보조관념(補助概念)을 활용하여 표현 대상을 나타내는 직유법(simile)이다. 문법구조는 "A는 B와 같다." 또는 "B만큼 A인데, A+B라는 뜻을 담고 있으나 A=B라는 뜻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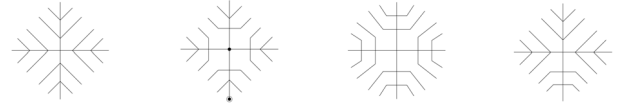
7) 이 부분은 장창식 2014, 『울판형 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학회』 제8집 한국암각학회 184~185쪽의 일부를 가저온 것이다.
 8) 이하우, 2014, 『임실 율판유적의 위상과 활용방안』, 『한국암각학회』 제8집 한국암각학회 166~169쪽.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적인 분포는 경성권 36곳 168점, 진리권 11곳 59점, 충청권 4곳 6점, 서울·경기권 5곳 6점, 제주·제주, 개성, 만주 3곳 3점이며, 이를 총합하면 260곳 252점이다.
 9) 장창식 2014, 『울판형 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학회』 제8집 한국암각학회 189~190쪽.
 10) 장성복도 고령지역에 산재한 울판형 암각화(7곳) 자료를 조사·분석한 장성복(2008)은 경사면에 새겨진 울판의 사례로 문수산 절산리 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11) 장성복 2008, 『고령지역의 울판형 암각』, 『한국암각학회』 제11·12집 한국암각학회 168쪽.
 12) 이전의 울판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울판을 새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다.
 13) 미완상태의 울판은 "지속적인 풍화작용과 그로 인한 표면파리, 박락에 의해 일부가 사라지고 남은 잔존형태로 볼 수 있다(이하우, 2014, 『상가 율판유적의 조사와 문화사적 위상』 그리고 황윤, 『임실 상가율판 유적, 한국암각학회·임실문화원·울산대 민국대암각학유적보존연구소 21~22쪽). 그러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형태만 '의례의 종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울판형 암각화는 일각(隅角)의 결과뿐만 아니라 바위에 울판을 새기는 수행과정까지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울판형 암각화가 단순히 놀이용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특정 의례에 의한 결과물, 즉 의례적 상관물(Ritual correlative)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므로 울판형 암각화는 놀이로서의 도판이라는 점과 의례로서의 상징도판이라는 이중적인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다.

특히 이 글의 관심이기도 한 건축물의 주춧돌에 새겨진 울판의 존재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 이 질문은 "왜 주춧돌에 울판을 새겼을까?" 하는 질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주춧돌에 새긴 울판형 암각화가 놀이용이라면 이런 질문은 무용해지고 명칭을 '울판 암각화'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애써 하는 것은 주춧돌 울판이 놀이용이 아니라 특정의 의례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제주도 향파두리 항몽유적 내성지의 3호 건물지 좌측 두 번째 열의 주춧돌에서 울판형 암각화가 발견되었다.¹³⁾ 주춧돌은 비정형의 자연암석을 활용한 담벽주춧돌인데, 79×50cm의 남북장축의 바위 중심부에 주좌를 남기고 그 이외의 공간은 바위표면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 깎낸 형태이다. 주좌의 한가운데에 울판을 새겼으며, 울판은 20.5×16.8cm의 크기에, 전반적으로 거칠게 쪼아서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울판에서 북쪽으로는 울판을 구성하는 29개의 홈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홈이 한 개 더 새겨져 있다.¹⁴⁾

이와 같은 사례는 제주도로서는 처음 있는 발견이고, 육지부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사례(총5곳 7점)임을 감안할 때 예사일이 아니다. 놀이용¹⁵⁾이 아닌 특정 의례용이라면 울판형 암각화라는 명칭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의미를 적극 따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 논제를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출토 '울판형 암각화'의 상징성」으로 삼은 까닭이다.



〈도 1〉 현행 제주도 울판

13)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41쪽. 이 울판형 암각화는 3호 건물지 주춧돌 위에서 발견되었고, '도판 3'의 번호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14) 2015년 6월 현재 이하우(울산대학교 민국대암각학유적보존연구소)는 2013년 발표자문 「주초석에 새긴 울판형 암각화의 성격」을 보완하여 「주초석 울판형 암각화의 성격」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필중인 원고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5) 참고로 제주도의 현행 울판은 (그림 1)과 같으며, 육지부와 향파두리 발견 울판과는 다르다. 제주도의 울판은 (상자+4)의 4자에 V자 2개씩을 각 방향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현재까지 이런 형태의 울판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2. 주춧돌 울판형 암각화에 대한 해석 검토

지금까지 주춧돌에 새긴 울판형 암각화를 발견한 곳은 익산 미륵사지 2점, 경주 반월성지 1점, 안동 조탑리 사지(寺址) 1점, 종루지(址) 2점, 경주 황룡사지 1점 등이다. 총5곳에서 발견되었고, 수효는 모두 7점이었다.¹⁶⁾ 여기에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3호 건물지의 주춧돌 울판 암각화 1점을 추가하면 총6곳 8점이 된다.

연번	유적명	소재물과 수량	위치	성격
1	미륵사지	북회랑지·강당지 주춧돌 2점	북(좌)	백제왕실 관련
2	반월성지	용도미상 건물지 주춧돌 1점	북쪽	신라 왕궁지
3	황룡사지	승방지 주춧돌 1점	북(좌)쪽	신라왕실 관련
4	조탑리사지	용도미상 건물지 주춧돌 1점	불명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
5	종루지	종루 주춧돌 2점	북(좌)·모서리	조선왕조의 종루
6	향파두리 내성지	3호 건물지 주춧돌 1점	****	삼별초 항쟁 거점
총계	6곳	8점		

〈표 2〉 주춧돌 울판형 암각화 현황

주춧돌 소재 울판형 암각화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제출한 연구자는 송화섭(1995, 2014), 장장식(2008), 이하우(2013) 등이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화섭(1995)은 익산 미륵산과 미륵사지의 울판형 암각화가 익산지역의 토착 농경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이 결합되고, 백제왕권의 안정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⁷⁾ 이와 같은 논의는 울판형 암각화를 새롭게 보는 인식을 제공하여 연구사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송화섭(2014)은 울판형 암각화를 ‘분묘(墳墓) 울판, 건물지(주춧돌) 울판, 산정(山頂) 울판’으로 나누고, 건물지 울판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피장자의 안식처인 저승세계를 성만다라(星曼多羅)로 조성하려는 밀교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처럼 만다라의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주초석에 울판을 새겨 불교적 이상향 세계, 즉 만다라의 상징적 공간임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⁸⁾

이와는 달리 장장식(2008)은 종루의 주춧돌 울판 2점을 새로 발견하고, 주춧돌의 울판은 입주(立柱)의(柱)로서 섰된 것을 쫓는 하나의 상징이며, 28수(宿)나 복두칠성을 주춧돌에 새

려 없었으므로 기하학적 완전공간을 구현하려는 상징행위로 보았다.¹⁹⁾ 이와 같은 견해는 암각화의 하나로서 자주 발견되는 참고누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고누판형 암각화가 삼태생(三台六窟)의 윤행을 모시한 것’이라는 가설을 내리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²⁰⁾

또 이하우(2013)는 주초석에 새긴 울판형 암각화를 ‘천문의 조화를 건축물에 치환(Transposition)하고, 우주적 천문질서가 축약된 소우주가 건축물에 조용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상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²¹⁾ 이 견해는 ‘주초석 울판형 암각화는 왕조사회의 이상과 의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춧돌 울판형 암각화에 대한 논의는 고고학·민속학계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편이다. 논증해야 할 부분이 있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상호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향파두리 내성지에서 발견한 주춧돌 울판형 암각화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주춧돌을 수습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적 식견에서 치밀하고 사명감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 전통적인 건축의례의 상징성

건물지 주춧돌에 울판을 새긴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건축의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현행의 건축의례 중에서 전통적인 의례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건축의 의례와 상징성을 살펴야 하고, 문헌에 수록된 국가적 건축의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료가 그리 많지 않거나 소략한 편이기 때문에 주춧돌의 울판형 암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건축의례는 건축물을 짓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날받이·덧고사, 개공(開工)고사·모탕고사, 성주운보기, 상량(上樑)고사, 집들이·성주고사 등²²⁾을 들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개공고사·모탕고사’와 ‘성주운보기’ 사이에 ‘정초(定礎)의례, 입주(立柱)의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의 독자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지만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기적으로 이어지는 분절적인 단위들이다.

모탕고사는 땅을 선정한 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춧돌을 놓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과정

16) 주춧돌 외에 건물지 건물에서 발견된 3사대(강화군 강화산성 남정대지 출토 건물, 인왕사지 출토 건물, 개성 만월대지 출토 비석(전원)이 있으나 주춧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미륵사지 서방 해체 과정에서 석부재(석축 L157)에서 발견된 2008.8. 장장식 송화섭 등에 의해 확인된 울판형 암각화 1점 역시 주춧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한다. 여. 건물 울판이 수록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서연대 등 3인 201, 『민간의 전통놀이』, 인문문화재단, 14쪽; ②국립경주추사재연구소, 2009, 『해 인왕사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63쪽; ③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부동굴 발굴조사서』, 522쪽.

17)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울판형 비위(非位)에 대하여』, 『황토문화』 제9·10집 황토문화연구원 45~65쪽.

18) 송화섭 2014, 『한국 울판형 암각화의 역사와 성격』, 『한국암각학회』, 제8집 한국암각학회 140~141쪽.

19) 장장식 2008, 『종루의 주춧돌에 새긴 울판』, 『민속소식』 제57호 국립민속박물관 4~6쪽; 이 글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울판의 자료적 연구논문본』, (사)한국민족총연합회, 2013, 675~680쪽에 재수록하였다.

20) 장장식 2014, 『울판형 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학회』, 제8집 한국암각학회 181~203쪽.

21) 이하우 2013, 『주초석에 새긴 울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년 문화재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총연합회, 37~54쪽.

22) 김광민 1998, 『한국의 주거문화』, 인문사 39~53쪽.

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이른바 주춧돌을 놓기 전에 지내는 의례인데, 이 때, 집터에 특정 물건을 매장하기도 한다.²³⁾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데, 이를 정초(定礎) 또는 열초(列礎)라 한다. 이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관(地官)인데, 지관은 열초일(列礎日)과 열초시(列礎時)는 물론 좌향(坐向)을 정하며, 이에 따라 특정된 열초일과 열초시에 주춧돌을 놓는다. 지관은 패철(佩鐵)을 놓아 건물 중심이 되는 주춧돌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에 벽선으로 +자를 표시(십반)를 하는데, 이를 ‘십반 놓는다’고 한다.

십반을 놓은 특정 주춧돌은 기둥을 세우는 기준점이 된다. 십반을 놓은 주춧돌은 여러 주춧돌 가운데 특정된 으뜸 주춧돌이고, 첫 기둥을 세우는 대상인 동시에 건축물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확한 일점을 정하기 위하여 망동(望筒)으로 북극성의 위치를 측정하여 원하는 자리를 잡는다.’²⁴⁾ 이 말은 짓고자 하는 집이 바르게 정남향(子坐午向)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극성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²⁵⁾

민간건축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십반은 백제의 왕궁건축물에서도 발견될 만큼 유래가 깊다. 미루사지 석탑을 해체할 때, 심주석 상면에 놓은 벽선의 십반이 선명하게 드러났다.²⁶⁾

입주(立柱)의례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의례를 가리킨다. 지관이 특정한 날에 입주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기둥을 세운다’는 뜻으로 수주(豎柱)라는 용어를 썼다. 길한 입주일(立柱日)을 『산림경제(山林經濟)』²⁷⁾에서는 ‘수주길일(豎柱吉日)’이라 했다. ‘수주’가 입주(立柱)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국역 승정원일기(國譯 承政院日記)』²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용례를 근거로 입주의례를 ‘수주(豎柱)의례’라 불러도 무방하다.

첫 기둥은 +자를 표시한 주춧돌부터 세워진다.²⁹⁾ 구체적으로 기둥을 세울 때에 주좌(柱座)에 소금, 간수, 양젓물, 백반을 뿌리거나 숯, 엽전 등을 선택적으로 넣는다. 때로는 기둥의 밑을 파서 백지와 함께 넣기도 한다. 이들은 화재막이, 벽사, 기복(祈福) 등의 의미로 수행되는 의례이다.³⁰⁾ 이외는 달리 글씨를 써서 이를 갈음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다. 흔한 사례는 아

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윤선도 가옥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윤선도의 집은 명래방 종현(鍾峴)에 있다 지금도 주춧돌에 먹으로 쓴 여산부동(如山不動)이라는 글자가 있어 바람과 비에 씻기지 않는다. 혹은 허목의 글씨라고도 하며, 집터는 연소형(燕巢形)이라고 한다.³¹⁾

이처럼 민간에서 행해진 건축의례는 터 닦기에서부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상량식과 입택(入宅)의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특정 의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례 가운데 입주의례에서 주목할 것은 ‘특정 주춧돌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점과 ‘특정 기둥 밑 주좌(柱座)에 특정물을 놓거나 글씨를 썼다’는 점이다.

국가 관련 건축의례는 민간의 건축의례처럼 진행되었을까? 아니면 달리 진행되었을까? 궁궐 건축물 의례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으나 이런 질문에 답변할 구체적인 양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의 행간 읽기를 통해 정초(定礎)의례와 입주의례 또는 수주(豎柱)의례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국가가 주동하여 건축한 전각(殿閣), 사우(祠宇), 재실(齋室), 비각, 관청, 대문 등 국가건축물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왕조실록의 경우, 영조, 성종, 명종, 고종대의 사례가 있고, 『일성록』의 정조대, 『승정원일기』의 고종대에 행해진 건축물의 정초(定礎)와 입주의례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16건인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

- ① ‘영조실록’ 즉위년 9월 27일 재실에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으며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보를 얹는 일에 대한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를 일관이 잡게 하였다. 서쪽 기둥을 먼저 세우라.
- ② ‘국역 일성록’ 정조 2년(1778) 1월 15일 터를 닦는 것은 2월 17일 사시(巳時)에, 주춧돌을 놓는 것은 18일 오시(午時)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것은 같은 달, 같은 날, 신시(申時)에 하라.
- ③ ‘국역 일성록’ 정조 17년(1793) 2월 21일 주춧돌을 세우는 일은 4월 8일 묘시에 먼저 북쪽 주춧돌부터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과 기둥에 대들보를 올리는 일은 4월 11일 사시(巳時)에 먼저 북쪽 기둥을 세우라.
- ④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11월 2일 함녕전 대문의 주춧돌을 11월 4일 미시(未時)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9일 오시(午時)에 하고, 상량하는 날은 20일 진시(辰時)가 길하다.
- ⑤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77) 2월 30일: 상량 침전의 주춧돌을 3월 2일 미시(未時)

23) 초시 앞세 물로 쌓은 기초부분을 적상(積上)이라 하는데, 보통 이 부분에 특정물건을 매납한다. 진단구(鎭壇口) 또는 지단구(地壇口)와 비슷한 상징의례이다. 서울의 사인동 발굴조사에서 적상 부분에 매납된 도자기가 수습된 바 있는데, 이 유물은 15~16C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문화재연구원, 2010, 『사인동 글로벌 콜라보스탈링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구위원회 자료』, 26쪽 참고.

24) 신영호, 1983, 『한국의 살림집』(상, 열화당, 256쪽.

25) 이하유, 2013, 『주초사에 담긴 울만형 알기화의 상징』, 『2013년 동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51쪽.

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미루사지 석탑 사리장엄』, 13쪽.

27) 『산림경제』 재목 「산목 조에서는 ‘수주길(豎柱吉日)’ 항목을 들어 기둥 세우기에 좋은 날을 제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 산림경제』, 217쪽.

28)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77) 5월 15일 ‘회문 정자각 중건정 당상(儀仗)가 7월 15일(庚申)에 상(上)의 주면(奏)으로 인하여 정초(定礎)할 길일을 정래원으로 하여금 다시 택일(擇日)을 하여도 명을 내리셨습다. 정초할 길일을 다시 택일하기로 한 이상 수주(豎柱)와 상량(上樑)하는 날 또 한 차례로 늦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日官) 김동표(金東杓)에게 다시 택일하게 하였더니 정초는 음력 5월 27일 묘시(卯時)에 하되 북쪽 주춧돌부터 먼저 놓고, 수주는 6월 10일 진시(辰時)에 하되 북쪽 기둥부터 먼저 세우고, 상량은 동일 신시(申時)에 하는 것이 길하다고 하였습다. 이날 이 시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절겠습니까?’

29) ‘개궁대길(開宮大吉)’이라 쓴 홍지(精紙)를 기둥으로 쓰일 목재의 상부에 붙이고, ‘개태공재제(臺太公在此)’라 쓴 홍지(精紙)를 목이 할 하는 곳에 붙인다. 이 종이는 일일 때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 정보문, 1981, 『한국의 민가 연구』, 보진재, 39쪽.

30) 김도경, 2004, 『한옥살림집을 짓고』, 현암사; 신영호, 1986,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249~284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 3권, 『동국여지보』 재목 「한성부 조: 이와 동일한 기록으로 『임해방』 29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부동무(不動樓) 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글은 쓴 곳이 주춧돌이 아니라 돌기둥이라 했으나 두 기록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셈이다. 『임해방』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춘명(鍾鳴)의 각 이진(石) 곳에 고색(古色) 하나기 있다. 터가 좋은 곳으로 일컬어지니 장인이 굶어보고 사자가 턱 트인 곳이다. 마유(麻油)가 성안한 글씨로 ‘여산부동(如山不動)’ 네 글자를 고전(古韻)으로 석주(石柱)에 썼고, 우암이 ‘부동(不動樓)’ 세 글자를 반해서(半樓) 써서 두 자 차에 걸었다.’

에, 입주는 11일 묘시(卯時)에, 상량은 14일 신시(申時)에 하라. …(중략)… 남쪽의 주춧돌을 먼저 놓고, 남쪽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길하다.

⑥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5월 27일: 휘릉 정자각의 주춧돌을 5월 27일 묘시(卯時)에, 수주(塿柱)는 6월 10일 진시(辰時)에 하라. …(중략)… 북쪽의 주춧돌을 먼저 놓고, 북쪽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길하다.

⑦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8년(1901) 1월 9일: 주춧돌을 놓는 일은 3월 3일 미시에 남쪽 주춧돌을 먼저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은 동월 9일 미시(未時)에 남쪽 기둥을 먼저 세우라.

이들 기록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춧돌을 언제 놓는가, 어느 주춧돌을 먼저 놓는가’와 ‘기둥을 언제 세우는가, 어느 기둥을 먼저 세우는가’이다. 방위에 따른 주춧돌의 선별과 시기에 입각한 정초(定礎) 판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입주의 경우 입주 시기를 선별하되 정초된 결과에 따라 특정 방향의 기둥이 특정되고 있다. 이 점은 정초와 입주가 특정한 인식 틀에 의해 행해졌다는 뜻이고, 기록 이외의 ‘의례화된’ 특정 행위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나 건축의례의 하나로서 인신을 공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기로 든다.

- ① 『고려사』 「열전」 권42 최충헌조: 최충헌이 집을 지을 때 동남동너를 잡아 오색옷을 입혀 네 귀퉁이에 묻어 토목의 기운을 가신다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다.
- ② 『고려사절요』 제25권 충혜왕 4년 4월 경성 안에 뜬소문이 돌기를 “왕이 민간의 어린아이 5,60명을 잡아다 궁궐 주춧돌 아래에 묻으려 한다.” 하여 도망하여 숨는 자가 많았고, 불량배들이 이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다.

사례 ①, ②에서 보이는 인신공희(人身供犧)가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건축의례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경복궁을 중창할 때나 압록강 수풍담을 쌓을 때에도 ‘아이를 묻는다’는 소문이 난 것을 보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건축의례와 관련된 특징의례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지 주춧돌 위에서 옷판형 암각화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그 수효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주춧돌의 옷판형 암각화가 놓이와는 관련이 적은 것이고, 건축의례의 사고와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향파두리 내성지에서 발견된 주춧돌 옷판 암각화의 의미를 밝힐 차례가 되었다.

4. 새로운 해석의 시도

			
(도 2) 종루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A	(도 3) 종루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B	(도 4) 3호지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	(도 5) 3호지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 도면 (이허우, 2013)

국가 관련 건축에서 다른 의례는 기록되지 않아 주춧돌 정하고 기둥을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었다. 다만 부족한 자료의 행간에서 세 가지 개연성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다.

- ① 건축물을 세울 때 특정의례를 행한다.
- ② 주춧돌에 특정 상징물을 표현한다.
- ③ 표현물은 ‘옷판’과 같은 상징물일 수 있다.

이런 추론은 지금까지 발견된 총6곳의 8점(건축물 주춧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논거로 삼을 만하다. 건축 과정에서 단순히 여가를 즐기 위해 주춧돌 위에 놀이용 옷판을 새겼다는 해석은 여러 모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의 여유가 없으며, 주춧돌이 놓인 공간은 놀이판의 국(局)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공간이다. 놀이용이라 해도 땅바닥에 그리면 될 옷판을 굳이 바위 면에 새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것인데, ①-③의 개연성에 힘입어 옷판의 상징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천문학은 성리학적 우주론(cosmology)에 지적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른바 지상의 질서가 천상의 질서처럼 확고해야 하고, 천상의 확고한 질서를 재현함으로써 지상의 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성리학적 우주론이다. 이에 따라 옷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십팔수가 천구상에 포진한 것으로 비유하고, 태양의 이분이지(二分二至,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운행을 모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해석은 김

문표(金文豹, 1568-1608)의 「사도설(柵都說)」에서 비롯되는데, 김육(金瑬, 1580-1658)이 편찬한 『송도지(松都志)』(1648)에 수록된 이래 이익(李瀾, 1681-1763)³²⁾, 심익운(沈翼雲, 1734-?)³³⁾, 정동유(鄭東愈, 1744-1806)³⁴⁾, 이규경(李圭景, 1788-?)³⁵⁾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조선조 지식인의 인식과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해석과 수용인 셈이다.

현대의 연구자 역시 중국의 천문학적 지식에 따라 김문표의 「사도설」을 지지하거나³⁶⁾ 원(○) 내부의 +자형 구성(㊸)에 주목하여 태양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태양상징이라는 독특한 설도 제기되었다.³⁷⁾ 태양상징설을 논외로 하되 율판이 이십팔수를 반영한 도안이라는 「사도설」은 자체의 정연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율판 또는 율놀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이고, 중국문화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중국에 없는 우리만의 율판을 들어 ‘당대의 보편적인 지식인 중국의 천문학적 논리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한’³⁸⁾ 셈인데, 이와 같은 이십팔수설(二十八宿說)은 율판의 외재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율판에 대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렇다면 서양의 문화이론을 들어 우리문화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을 비판하여 대안적인 해석을 내린 최근의 연구성과가 계속되어 주목된다. ‘율판은 북두칠성의 일주를 모사한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주장³⁹⁾은 주춧돌의 율판형 암각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일권(2002)⁴⁰⁾과 이하우(2004)⁴¹⁾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칠성의 주천(周天)을 모식(模式)하여 율판으로 완성되어 가는 도판을 제시함으로써 율판과 북두칠성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였다.⁴²⁾ 특히 이하우(2013)는 율판이 일종의 천문도이고,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정확한 시간 간격과 일정한 공간적

위치를 갖고 연구 운동하는 북두칠성을 도형화한 상징문양임을 재차 기술했다.⁴³⁾

조선조의 해석과 현재의 해석에서 차이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율판이 천상의 질서를 구현한 우주론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주춧돌의 율판은 천문적 질서에 조응하는 건축물의 상징문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의례를 염두에 두면서 북두칠성의 일주를 모사한 것이 ‘율판형 암각화’라는 그간의 견해를 접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율판형 암각화에서 도형 ‘율판’은 ‘상하좌우 대각의 완전대칭꼴 도형’이라는 점과 매우 단순한 구조의 도판이라는 도형성으로 특징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외변을 이루는 원형(○)과 원형 내의 +자 꼴로 이루어진 도판(㊸)이다. 가운뎃점을 북극성으로 볼 때, 원형(○)과 원형 내의 +자 상에 놓인 점은 모두 28개이다. 28은 4×7인데, 4는 2분 2지(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기반으로 한 사계절을, 7은 북두칠성을 각각 뜻한다. 이들이 북극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천구(天球)처럼 원형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는 북두칠성이 사계절을 주천(周天)하는 각각의 통시성을 공식적 관점에서 집합한 것이다.

율판을 주춧돌에 새길 때, 기둥을 세우는 자리에 새긴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른바 주좌(柱座)에 세운다는 것인데, 이는 주좌에 율판을 새겼다는 뜻이고, 북두칠성의 주천을 상징한 율판 위에 기둥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른바 율판형 암각화가 존재하는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은비성(隱秘性, occultism)을 내포하고, 행위성에서 이를 상징한다.

주춧돌의 율판형 암각화는 주좌의 율판이 지닌 은비적(隱秘的)인 상징성에 기반한다.

- ① 확고한 별자리인 북두칠성의 주천(周天)을 모사하다.
- ② 전후좌우(前後左右), 대각대칭(對角對稱)의 완전한 기하학적(幾何學的) 완전공간을 만들다.
- ③ 천문학적 질서를 지상의 건축물에 치환(置換, transposition)하다.
- ④ 건축물의 영구성과 이상적 질서를 확고하게 담보하다.

건축의례로 볼 때, 이는 민간의례와 차별화한 지배층의 상징의례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춧돌의 율판은 이중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 ① 북두칠성의 주천을 모사한 율판을 주춧돌에 새겨 우주론적 질서를 부여하고
- ② 전후좌우·대각의 완전대칭인 기하학적인 율판을 통해 중심성을 부여한다.

후자는 엘리야의 중심이론⁴⁴⁾을 염두에 둔 해석인데, 율판을 새긴 주춧돌은 중심성과

32)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주성과 28수의 관계를 논했고, 율판을 이분이자의 태양 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 「성호사설」 제4권 「민물(閔物傳)」 「사도」 조.

33) 심익운의 율에 대한 인식은 「간천각소하(江天閣小舍)」에 수록되어 있는 「사희경(塞嶺圖)」에 잘 드러나 있다. 김민태(2009)는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희경」을 발굴하여 소개한 바 있다. 김민태, 2009, 「율놀이에 관한 정정 고찰-「사희경」의 존재 여부와 율놀이의 유래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24호, 국립민속박물관, 127~130쪽 참고.

34) 정동유는 「주영대(書永臺)」를 기술하면서 김문표의 「사도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바탕이 동쪽은 상천(上天)한 것이며, 안이 도란 것은 상지(象地)한 것이며, 곧 하늘이 땅의 바깥을 깰 때는 천보자의(天保地)의 형국이다. 중심에 자리한 별은 주성(主星)에,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이십팔수이다.” 『주영대』 4권 「정면(靑面)」.

35)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집」과 「사해변중(塞嶺辨中)」에서 “가운데 한 점은 주성(樞星)을 상징하니 곧 북진(北進)의 거서(居師)한 뜻이며, 주변에 배열된 것은 네 칠여(七節)를 상징한 것이다. 곧 사방 각기 칠성이 있어 사시를 운행하는 의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6) 송하섭, 1996,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율판형 바위구멍에 대하여」, 『장토문화』 제9·10집, 장토문화연구회; 송하섭, 2004, 「한국 율판암각화와 불교신앙」, 『한국 암각화연구』 제3집, 한국암각학회, 7~9쪽.

37) 권헌, 1996, 「율판형 암각화의 연구」, 『인동시학』 제2집, 67쪽.

38) 이하우, 2013, 「주초성에 새긴 율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통교협회, 50쪽.

39) 이하우, 1994, 「철보미를 바위그림」, 고문헌; 김일권, 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헌』 51집; 김일권, 2004, 「한국 율놀이만 바위그림에 투영된 천체우주론적 관점 고찰」, 정음 투숙산 문화재단 바위그림 자료 소개를 덧붙여, 『한국 암각화연구』 제3집, 한국암각학회, 57~105쪽.

40) 김일권은 「한국 고대간의 천문우주관」(『장학 한국고대사』 제8권, (재)국립국사자료연구원, 2002, 43쪽)을 시작으로 최근의 연구성과인 「한국 율의 문화사」와 율판암각화의 천문사상·인상의 율판암각화 발굴과 천문의 도시 단상을 붙여(『한국암각화연구』 제4집, 한국암각학회, 2014.12, 81~120쪽)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북두칠성 주천문형에서 율판도로의 모델링 과정을 밝혔다.

41) 이하우, 2004, 「한국 율판형 바위그림 연구-방위기를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연구』 제3집, 한국암각학회, 25~26쪽.

42) 김일권과 이하우의 모식도형은 상호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는 토론문을 통해 ‘북두칠성의 일곱별인 파군성(破軍星)이 도, 띠, 띠, 띠, 띠, 띠, 띠의 7자리에 들어가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나름의 모식도형을 제시한 바 있다. cf. 장정식, 2013, 「주초성에 새긴 율판형 암각화의 성격(이하우)에 대한 토론문」, 『율판형 자료집 연구논문집』, (사)한국민족통교협회, 67~673쪽.

43) 이하우, 2013, 「주초성에 새긴 율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통교협회, 2013.6.17, 48~50쪽.
44) M. Eliade, 『동화 역』 1983, 『성리 속』, 학민사, 26~39쪽.

세계의 축(Axis Mundi)을 함의한 구체물이고, 성별(聖別)된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축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건축의례의 한 양식으로써 특정 주춧돌에 윗판을 새겼다는 행위는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비의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주론적 질서와 중심성이 부여된 주춧돌에 기둥을 세운 건축물은 우주론적 질서가 구현된 세계의 중심이 된다.

5. 잠정적인 결론

건축물 관련 주춧돌에 새긴 윗판형 암각화를 해석하려 할 때, 전통적인 풍수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 허한 곳을 비보(裨補)하고 넘치는 것을 압승(壓勝)하는 것이 비보풍수의 핵심이다. 윗판이 다수의 주춧돌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주춧돌에서만 발견된다. 이 점은 주춧돌의 윗판형 암각화가 비보풍수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도선(道諒) 풍수 이후에 적용된 의례적 상징이 될 것이다. 차후의 과제로 삼음만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윗판형 암각화는 복두칠성을 숭신하는 칠성신앙의 표현이다. 이는 도교적인 표현물이고, 천체와 천상의 이상적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은비성(隱秘性, occultism)에 입각한 상징물이다. 비의적(秘儀的, esoteric) 성격을 지닌 표현물을 주좌에 놓음으로써 기둥에 가려지게 되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비의성'을 함의한다. 이렇듯 정확한 은비성을 위해 주춧돌에 새긴 윗판의 크기는 기둥의 지름보다 약간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는 윗판'이고, 비의적인 상징이다.

가설적인 차이이지만 결국 향파두리성지의 주춧돌 윗판형 암각화는 다음의 성격을 지닌 비의적 의례상징물(儀禮象徵物)로 해석해야 유물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

- ① 비상상황에서 급히 짓는 삼별초의 건물에 복두칠성의 주천(周天)을 모사한 상징물을 통해
- ② 천문학적 질서가 반영된 기하학적 완전공간을 구현하고
- ③ 삼별초가 꿈꾸던 이상(理想)과 왕국 건설을 달성하려는 은비적인 상징물

그러므로 제주도의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주춧돌의 윗판형 암각화는 일반적인 건축의례와 맥을 같이하는 상징물이며, 국가 차원(삼별초)의 건축의례 상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최고(最古)의 연대기적 윗판 유물이다.

참고문헌

고서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사회변증설(社會辨證說)』.
 정동유, 『주영편(晝永編)』 4권 『정면(貞面)』.
 『국역승정원일기(國譯承政院日記)』 고종 34년(1897) 5월 27일.
 이이, 『성호사설(星湖雜說)』 제4권 『만물문(萬物門)』 사도(欄圖).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권,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제2편 한성부(漢城府).
 『임하필기(林下筆記)』 29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부동부(不動樓).

논문 및 단행본

- 권미현, 1996, 『윗판형 암각화의 연구』, 『안동사학』 제2집, 안동대학교사학회.
 김광연, 1998, 『한국의 주거민속』, 민음사.
 김도경, 2004, 『한옥살림집을 짓다』, 현암사.
 김만태, 2009, 『웃돌이에 관한 개념 고찰(사회경(細觀經)의 존재 여부와 웃돌이의 유래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24호, 국립민속박물관.
 김일권, 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51집.
 _____, 2000, 『한국 윗판형 암각화의 문화성과 상징성』, 『학예연구』 제3·4집, 국민대학교박물관.
 _____, 2002, 『한국 고대인의 천문우주관』, 『강좌 한국고대사』 제8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_____, 2004, 『한국 웃돌이란 바위그림에 투영된 천체우주론적 관점 고찰: 정음 두순산 명파대의 바위그림 자료 소개를 덧붙여』,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서영대 등 3인, 2011, 『인천의 전통놀이』, 인천문화재단.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윗판형 바위그림에 대하여』, 『향토문화』 제9·10집, 향토문화연구소.
 _____, 2004, 『한국 윗판암각화와 불교신앙』,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_____, 2014, 『한국 윗판형 암각화의 역사와 성격』,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신영훈, 1983, 『한국의 살림집』(상), 열화당.
 이하우, 1994, 『칠포마을 바위그림』, 고문연.
 _____, 2004, 『한국 윗판형 바위그림 연구-방위각을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_____, 2013, 『주초석에 새긴 윗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_____, 2014, 『삼가 윗판유적의 조사와 문화사적 위상, 그리고 활용』, 『임실 삼가웃판 유적』, 한국암각화학회·임실문화원·울산대 민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_____, 2014, 『임실 윗판유적의 위상과 활용방안』,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장보용, 1981, 『한국의 민가 연구』, 보진재.
 장장식, 2008, 『종루의 주춧돌에 새긴 윗판』, 『민속소식』 제157호, 국립민속박물관, 『윗문화 자료집, 연구논문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3 재수록.
 _____, 2013, 『주초석에 새긴 윗판형 암각화의 성격(이하우)에 대한 토론문』, 『윗문화 자료집: 연구논문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_____, 2014, 『윗판형·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정동락, 2008, 『고령지역의 윗판형 암각』, 『한국 암각화연구』 제11·12집, 한국암각화학회.
 M. Eliade, 이동하 역, 1983, 『성과 속』, 학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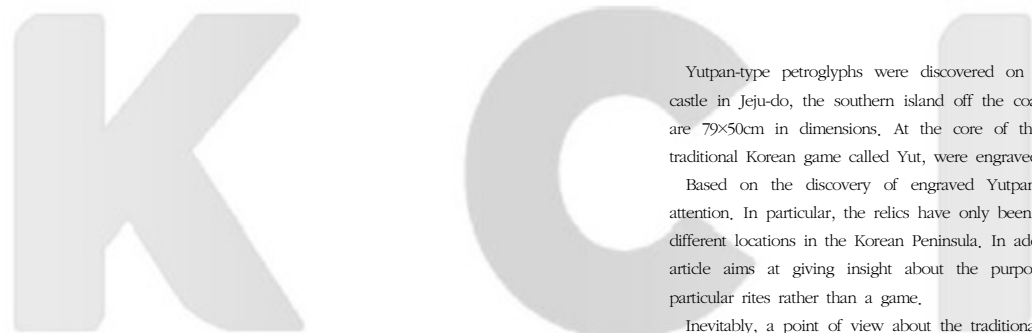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傳 인용사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 산림경제(山林經濟)』.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Abstract

Symbolism of ‘Yutpan-type petroglyphs’ discovered on
 Hangpaduri(缸坡頭里), Historic Site of Anti-Yuan
 Movement in Jeju Island

Jang, Jang-sik

Senior Curator a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Yutpan-type petroglyphs were discovered on stones for the foundation of Hangpaduri castle in Jeju-do, the southern island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ose stones are 79×50cm in dimensions. At the core of the stones, Yutpan, a board for playing a traditional Korean game called Yut, were engraved.

Based on the discovery of engraved Yutpan on the stones in scarcity, it deserves attention. In particular, the relics have only been discovered a total of 7 pieces found in 5 different loc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the first time in Jeju-do. This article aims at giving insight about the purpose of this Yutpan, which was used for particular rites rather than a game.

Inevitably, a point of view about the traditional Feng-Shui(風水) needs to be considered, when examining Yutpan-type petroglyphs on the foundation stones. For instance, the key point of Bibo Feng-Shui(裨補風水) is to compensate insufficiency and to restrain overflow. Then, Yutpans were only excavated on certain foundation stones. It describes the possibility that Yutpan-type petroglyphs on foundation stones could be expedient of Bibo Feng-Shui. On the other hand, this could mean being a ritual symbol after the era of Doseon(道諫) styled Feng-Shui, further studies will place pinpoints its use.

Like earlier studies determined, Yutpan-type petroglyphs are ritual correlatives, which stand for the faith of Big Dipper. In other words, those are specifically Taoistice presentations as well as occultism symbolic icons in order to embody astronomical and celestial ideal orders into the earth. Through placing esoteric characteristic objects on the foundation stone, the pillars of the building eventually cover the Yutpan. Thereby, it contains the sense of surreptitious ‘Esotericism’ by not being exposed simply. Thus, the size

of Yutpan, carved on the foundation stones are little smaller than the diameters of pillar. Therefore, Yutpan is construed as an occultist symbolic icon by 'being concealed'.

Hypothetically, Yutpan-type petroglyphs at Hangpaduri in Jeju can be analyzed as ritual correlatives of character described as below.

1) In emergency, Sambyeolcho, a special military troop in Goryeo Dynasty, built temporary architectures, which include occultist iconic objects depicting the orbit of the Big Dipper.

2) In order to implement a geometrical complete space, where astronomical orders are reflected in,

3) In order to achieve Sambyeolcho's ideals, resistance and establishing a kingdom.

Hence, Yutpan-type petroglyphs discovered from Hangpaduri relics in Jeju-do symbol in relation with general builder's rite. Consequentially, these relics heighten the value in terms of being created as a symbolic meaning of constructional rites as well as the oldest chronological artifact found in Jeju-do,

Keywords

Hangpaduri in Jeju Island, Yutpan-type petroglyphs, Foundation stone, Ritual correlative, Esoteric character, The Big Dipper

한국 우란분재(盂蘭盆齋)의 역사적 전개와 연희양상

최 유 진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1. 머리말
2. 우란분재의 역사
 - 1) 우란분의 유래
 - 2) 한국 우란분재의 역사적 전개
3. 한국 우란분재의 연희양상
4. 맺는말